

禪마저 돈으로 계산 美 자본주의 습성 “수행의 세속화 경계 하자”

스님·교수 등 트리사이클誌 통해 지적

선원을 찾는 미국 불자들이 돈가 치로 득실을 따지는 일상 습성을 수행에까지 연결시켜 미국 불교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재가불자에게 불교교리와 명상을 가르치는 라이신교수(메사추세츠대 유전학)를 비롯해 나이스테드(삼발라산 편집위원) 더글라스스님(몬타나사원) 타니시로스님(캘리포니아 Metta Forest 사원) 등은 트리사이클誌 최근호에서 “무엇이든 돈가 치로 재고 계산하는 세속의 산술습성이 정신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원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삼발라산원에서 명상수행을 가르치는 나이스테드는 “선원을 방문한

불자에게 하루 한시간의 명상을 권할 때 대부분은 하루에 명상을 3시간하면 이득이라는 선원에 나오지 않는다”며 “일상에서나 생활하면서 산술습성을 명상에 일해서까지 적용시키고 있다”고 고집했다.

더글라스스님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기술학원에서 수강료를 지불하고 기술교육을 받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하며 “선원에서 지내기 위해 일정한 수강료를 지불했다더라도 수행은 수강료와는 무관하며 선원이 마련한 하루 일과를 잘 따르는 것이 불자의 두리”라며 불자들이 수행의 특과 실을 따지는 그릇된 수행관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처님 진리를 배우려는 재가불자의 첫 번째 덕목이 ‘구하는 자세’라고 말하는 타니시로스님은 “태극에서 재가불자들이 스님에게 재물을 보시하는 것은 꼭 재물의 대가를 바라다기 보다는 부처님 진리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보시는 재가불자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메사추세츠의 선원에서 재가불자를 가르치고 있는 라이신교수 역시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인들은 실속 불자가 할지라도 돈과 관련된 일상에서의 편견과 습성을 먼저 극복하지 못한다면 수행도 세속화되어 깨달음이라는 지고지순의 성취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버마불교 살리는 미국인”

스티븐, 후원회결성 구휼운동 전개

한 미국인 불자가 ‘버마불교후원회’(Metta-Dana Project)를 결성해 버마(미얀마)의 승려와 가난한 불자들에게 보시공덕을 베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90년대 초 버마성지를 순례하며 참담한 현실을 알게 됐다는 S.스티븐(美, 버마불교후원회)이 그 주인공.

미국 (대법원)지(美)에 S.스티븐이 호노롤러(美, 하와이)에 본부를 둔 버마불교후원회를 결성하고 기금과 구호품을 조성해 구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후원회가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은 버마의 와체트(Waichet) 초등학교. 이 학교의 1년 수업료는 1인당 약 2만원. 그러나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중 75%는 2

50명에 장학금 지급...보건·의료 사업도

만민의 교육비조차 큰 부담으로 여겨는 가난한 가정의 자녀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버마불교후원회는 현재 이 학교의 50여명에게 연 2회에 걸쳐 4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불교평화연맹(BPF, 美)으로부터 차관과 의약품을 지원받아 버마의 북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교육을 시키는 등 의료 사업에까지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버마는 지금 디즈니(美)가 들어와 사업장을 신설하는 등 상업주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있다. “자본주의는 침체된 버마경제에 발전을 꾀할 수는 있었지만 가혹이나 쇠약

해진 버마의 고유 문화를 더욱 침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스티븐은 “지금까지 버마불교를 압박했던 정치적 박해가 조금 완화된 시점에서 서구 문화의 침투는 버마 불교의 재성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버마불교후원회는 버마불교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기금 마련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후원회는 인터넷(mettadana@aol.com)을 활용해 세계 불교계에 버마불교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기금조성을 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종단소식

장애인협 위로 방문

태고종총무원(원장 인곡)은 지난 1월 30일 상계동 대한장애인협회를 방문하고 연료비와 겨울옷 12박스를 전달했다.

이날 위문법회에서 사회부장 백운스님은 “몸의 장애를 딛고 열심히 삶을 개척하는 여러분은 자비의 화신이다”며 “보다 열심히 정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할 바란다”고 말했다.

구인사서 정초참배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9일부터 15일까지 총본산 구인사에서 신도 신도 정초참배를 실시한다.

이 행사는 전국사암과 각 단체에서 30여만명의 종도들이 구인사를 참배하고 종정 도용스님을 예배한다.

총지종조 탄신 90돌

총지종(총무원장 법공)은 지난 1월 29일 본산 총지사및 전국 사원에서 총지종 종조 원정대중사 탄신 90회 봉축법회를 개최했다.

이날법회에서 법공총무원장은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주창하였던 종조의 유지를 받들어 대사회적 운동인 소비자보호회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방송가 소식

광주BBS ‘...미륵의 땅’
광주전남 PD상 ‘작품상’

불교광주방송이 개국 1주년 특집으로 제작 방송한 ‘남도삼백리 미륵의 땅(PD 김형만 96.3.2 방송)’이 한국프로듀서협회 광주·전남지부 주최로 지난 1월31일 열린 ‘광주·전남 방송포럼’에서 ‘시상식’ 시상식에서 라디오부문 작품상을 수상했다. ‘남도삼백리 미륵의 땅’은 남도지방에 산재한 이름없는 미륵불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현장 취재를 통해 밝혀낸 다크멘터리로, 불교를 다루는 다크멘터리에도 불구하고 미륵 신앙을 객관적 시각에서 재조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은 불교광주방송의 ‘남도삼백리 미륵의 땅’은 오는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프로듀서상 본선에 광주·전남지역 대표작으로 추천됐다.

禪一如의 출가승
주호국 0 정선 736-3782

해외불교

미국 (대법원)지(美)에 S.스티븐이 호노롤러(美, 하와이)에 본부를 둔 버마불교후원회를 결성하고 기금과 구호품을 조성해 구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후원회가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은 버마의 와체트(Waichet) 초등학교. 이 학교의 1년 수업료는 1인당 약 2만원. 그러나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중 75%는 2

재가불자 발원 제주 광제사 낙성

제주도의 재가불자 18명이 ‘시비없는 법당’ 건립을 발원, 5년여 만에 사찰을 건립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제주시 외도1동 1천5백여평의 대지에 들어선 광제사(주지 법우)는 지난 1월 26일 봉축식과 함께 50평규모의 법당 낙성식을 가졌다. 광제사는 지난 93년 이경희씨(제주조선소 사장)를 회장으로 시비없는 법당 건립위원회를 결성하고 땅 구입에서 법당 설계, 목질 등 허드렛 일을 추진위가 직접해냈다. 회장 이경희씨는 “보시의 말고 적응을 막론하고, 누구든 평등하게 신심을 진작하고, 내집 드나들듯 존경받으며 다닐 수 있는 사찰이 ‘시비없는 도량’이라며 불우이웃을 위한 안식처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당 건립위원회’를 결성하고 땅 구입에서 법당 설계, 목질 등 허드렛 일을 추진위가 직접해냈다. 회장 이경희씨는 “보시의 말고 적응을 막론하고, 누구든 평등하게 신심을 진작하고, 내집 드나들듯 존경받으며 다닐 수 있는 사찰이 ‘시비없는 도량’이라며 불우이웃을 위한 안식처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습대책위는 또 방송국 자체대책위원을 포함하는 실무위원을 조만간 구성, 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경리 사고’ 수습대책위 구성

불교방송 이사회, 영담스님 위원장 선임

불교방송 이사회는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불교방송경리사고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 이번사건의 총체적인 재조사작업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3면)
상임이사 영담스님(조계종 총회 의원 석왕사 주지)을 위원장으로 총송회(진흥원 이사) 효강(총지종

법정위원장)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의 검찰수사를 토대로 회계감사의 범위를 확대, 4년도 까지 정밀재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수습대책위는 또 방송국 자체대책위원을 포함하는 실무위원을 조만간 구성, 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 불교TV의 다크멘터리 ‘신왕오천축국전’은 불교최초의 석굴사원 아잔타 예불라들을 찾아보는 각종의 대탐사 과정을 보여준다.

혜초스님 서역순례 ‘영상 재현’

불교TV ‘신왕오천축국전’ 10일부터 8부작 방송

혜초스님의 서역순례기를 영상으로 꾸민 8부작 특선다큐멘터리 ‘신왕오천축국전’이 10일부터 매주 월, 화요일 낮 1시 5분 불교TV를 통해 방영된다.

경주를 떠난 혜초스님이 중국 광저우를 거쳐 인도네시아 인도의 니코 바르군도 등을 통과해 인도남단에 이르렀던 파리의 뱃길을 시작으로 필리핀에서 파타네에 이르는 길과

왕오천축국전의 실질적인 시작인 쿠시나기라를 소개한다. 또 중천축을 떠나 남천축으로 가는 혜초스님의 목적과 불교최초의 석굴사원 아잔타 예불라들, 유수보살이 지은 절 등을 찾아본다. 이밖에도 혜초스님이 이슬람교의 침입을 받았다고 기술한 라자스탄 험난한 여정인 히말라야와 카라코람, 갠다라미술의 발원지 등을 그대로 답사한다.

죽음앞에서도 끝까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주장했다.

‘역사에 남기는 작업’ 그것은 어쩌면 강할머니에게 붙은 화두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또한 강할머니의 유일한 유산인 유형의 그림과 무형의 정신은 나눈 집에서 못내 가슴의 응어리를 지우지 못하고 살아있는 정신 대할머니들의 삶을 지속시키는 힘이 될 것이다.

나눔의집은 지난 4일 강할머니의 영결식에 이어 조계사와 일본대사관앞에서 노제를 지냈다. 강할머니의 유해는 나눔의집에 안치됐다.

자신과 조국의 참담한 과거를 ‘배앗긴 순정’ ‘분한’ 등 20여편의 그림과 시위를 통해 증언해온 정신대 강덕경할머니가 지난 2일 서울 중앙병원에서 향년 68세로 한 많은 생을 마감했다.

“나도 어린 것이 제일 먼저 (저 세상에) 가려고 그래” 한숨쉬던 할머니와 함께 죽음을 만류하는 나눔의집(원장 혜진스님) 할머니들을 뒤로하고, “저 세상에 가서는 열여섯 순결한 처녀로 다시 태어나 현현장부 일을 만나 백

년대로 하시기”라고 한마디 간절함을 남긴채 강덕경할머니는 끝내 숨을 거둔 것이다.

1929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강할머니는 겨우 열

강덕경할머니 가던 날

여섯살 때 일본군에게 끌려가 1년여 동안 위안부생활을 했다. 해방 후 귀국했지만 고향에 갈 수 없어 닥치는대로 남몰래 일을 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아가야 했다. 그러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통해 일제의 만행을 세상에 처음 공개했다. 그 뒤 강할머니는 4년 동안 매주 수요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에 참가했고, 1시간여의 시위를 마치고 나면 며칠씩 앓아

누워야 했다. 그러나 다음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나와 일본의 공개사과와 정부차원의 배상을 외쳤다. 폐암말기였다. 강제세, 폐암까지 겹쳐 손가락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이 나약해져버린 강할머니지만

죽음앞에서도 끝까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주장했다.

‘역사에 남기는 작업’ 그것은 어쩌면 강할머니에게 붙은 화두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또한 강할머니의 유일한 유산인 유형의 그림과 무형의 정신은 나눈 집에서 못내 가슴의 응어리를 지우지 못하고 살아있는 정신 대할머니들의 삶을 지속시키는 힘이 될 것이다.

나눔의집은 지난 4일 강할머니의 영결식에 이어 조계사와 일본대사관앞에서 노제를 지냈다. 강할머니의 유해는 나눔의집에 안치됐다.

비조작신사 해마다 ‘온다 축제’

“그동안 백제불교전래 기려왔다”

한일고대사학 오순제 소장 ‘확인’

일본 나라현의 비조사 근처에 있는 비조작신사에서 백제불교의 전래를 기리는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일고대사학연구원 오순제 소장은 “최근 비조작신사에서 매년 2월 첫 일요일 ‘온다 축제’가 열리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비조작 신사가 백제불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백제불교의 전래를 기리는 축제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순제 소장에 따르면 ‘온다 축제’의 내용이 백제문화와 불교의 전래를 기리는 사천왕사의 ‘왔소 축제’와 흡사하고, 온다라

는 단어도 우리말의 ‘온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온다 축제’의 내용은 백제 직조 기술의 전래와 백제 불교의 전래를 기념하는 것이며 해마다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봉행되고 있다.

비조사는 백제에서 보내온 불사리가 봉안돼 있고, 비조사의 창건에 맞춰 건립된 비조작 신사는 백제에서 전래된 직조기술과 불교문화의 기리는 백제 여신이 모셔져 있어 온다 축제가 백제 불교의 전래를 기념하는 축제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은)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진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미고도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 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바라밀포교원장)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애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 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오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 전화주문시 우편배달해 드립니다.
각 은행 농업 우체국
지리번호 762665 바라밀
유료간병인을 쓰실분은 대한불교 바라밀 간병인협회로 연락주시시오.
고통받는 환자를 부처님 공경하듯 정성껏 간호해 드리겠습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부설 : 바라밀간병인 협회
●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 부산지부 : (051)633-6412~3 FAX : (051)631-3884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100분의 스님을 모십니다”

① 전국 100군데 시·군단위로 현재 사업을 운영하시는 스님 한 분씩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② 신비의 佛탑다라니는 현재 각자암별로 스님들께서 스님 신도들에게만 보급하고 있으나 100분의 스님들께서는 지역내의 전불자들에게 佛탑다라니의 영험과 공덕을 알리고, 큰 부담없이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불사에도 도움이 되고, 신도포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③ 전화주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리며, 내용을 검토하신후 여건이 합당하시다는 판단이 되시면 연락주시는 순서대로 일자를 정하여 직접 찾아 뵙겠습니다. 한 지역에 한 분 스님계만 정액적인 배려를 해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佛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① 본회의 佛탑다라니에서, 거세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② 이 氣(기)는 신심있는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佛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유혹에 氣(기)의 흐름이 길까지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氣(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받게 되면, 약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확실히 바뀌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이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③ 그리고 금강경 신심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세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세로할 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령의 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 조상령의 영가가 친도되었는지? ● 하고자하는 일이 성취될 것인지? ● 무슨 일을 하면 될 것인지? ● 대학입시에 합격할 것인지? ● 어느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 현재 살고 있는 병환은 낫을 것인지? ● 언제까지 아를 낳을 것인지? 등 어떠한 일이든 금강경 신심다라니에 적어 넣고 기(氣)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질 것은 氣(기)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지 어려운 것은 氣(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서 기(氣)가 나오면 성공률(80~90%)은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氣(기)가 나오지 않을 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기)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④ 또한 우주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은빛 영(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는 인간의 몸에 빙의되고, 관념과정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있는 일이 있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佛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다 조상의 영도 안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떠나고 돌쳐 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년 정도 지내면 모든 영들이 친도되어 떠나고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저절로 풀려 나옵니다.
⑤ 佛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병행하고 단순해 부귀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에게는 영험력이 나타나지 않고 氣(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기(氣)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기 불심을 갖게 하는데 일조하고, 책자도 재산을 예언하여 그것을 피하게 하고 소망시켜 주는 명문으로 신도들에게 사용하게 됨으로써,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 불자님들께 佛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佛탑다라니 조성경위와 사용방법 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을 적지않은 가능한 살피게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 경성남북대 불교중앙대 불교대학 부설: 불교바라밀 건강연구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051)864-3740

■ 기타지역성당문의 및 책자신청 佛성지관음회 (회장 혜환)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35)34-9490, 39-1906,
야간(0342)706-3060